

기호일보

뉴스 오피니언 인천 경기 지역 스포츠 사람과 사람 기호TV



① X

한국에서 모든 결제 끝

해외렌터카는 AVIS 공식 웹사이트에서 저렴하게 예약하

에이비스렌터카

예약하

홈 > 사회 > 인천

복지 현장 “장애특성 고려 없어”... 판정기준 객관화 나설때

장애인 인권 현실과 개선방향<3> 장애등급제 개선 목소리 비등

양광범 기자 | 입력 2013.04.19 | 댓글 0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A(20·자폐3급)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최근 병원에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은 결과 기존 1급에서 무려 두 단계 하락한 3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A씨의 아버지는 18일 “의사가 아들과 몇 마디 나눠 보더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등급을 책정했다”며 “실제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이유로 경증장애 취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정도에 따라 규정되는 장애등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는 주관적 판단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1989년부터 장애등록제와 함께 장애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신체적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1~6급의 장애등급을 부여, 이에 따른 차등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신체·정신적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에 나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역시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처럼 복지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부평구에 거주하는 B(50·여·지체3급)씨는 얼마 전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떨어져 5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등급 하락을 우려해 서비스 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유도 응답이 아टक질 것을 우려해 별도의 족지저미스를 선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인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는 "장애등급 판정이 개인의 사회성이나 자립 생활 가능성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응답 능력만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장애인들에게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대답하지 말라는 교육지책을 사용할 때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도의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판정기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등급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장애등급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판정과정에서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의학적인 엄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관계자는 "일관성 있는 등급 판정을 위해 당사자의 최근 1년간 장기적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이의신청제도 등을 통해 수치화된 등급 판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장애인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단은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 판정기준을 만드는 등 장애 판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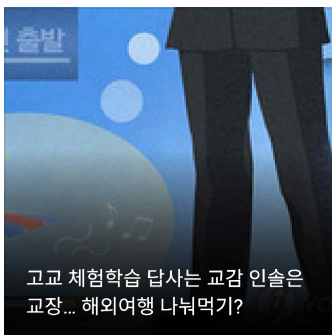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고교 체험학습 답사는 교감 인솔은 교장... 해외여행 나눠먹기?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출구 없이 진퇴양난
펜싱협회, 올림픽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 '편파 선발' 의혹
제2순환 고속도 인천~안산 2구간 대안노선도 'NO'
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레드카펫 밟는 '베테랑 2' 제작진과 출연진
'핸섬가이즈' 파이팅!



기사 댓글 0

AD

메디헬스뉴스

귓속 이명...마침내 극복하게 해준 "이것"
(실제 후기/ 불펌금지)

최신뉴스

- 영흥 에코랜드 2년째 방치에 '가슴앓이'
- 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 도내 중기, 亞 이슬람시장 판로 개척 첨병
- 여주 소상공인·신세계 '한 마을 식구'
- GH, 내달 26일까지 노후 주거지 가로주택 정비사...

부평시장역 2번출구

광고 플란지과병원

델리블리 롱길카라

광고 델리블리

바로 분해 효소 2주분 0원 혜택

광고 글램디

케겔운동 하지마세요

광고 웨이브케어

삼성화재
오토바이운전자보험

광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한화 값진인생 암보험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 서울 강동역 SK시공 "0원"계약금, 방3 욕실2, 378실
- 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28억 터졌다! 대박 종목!!
- 로또 당첨 쉽다..."용지" 뒤쪽 자세히보니 1등 번호가!? 6, 22...

①

케겔운동
하지마세요

광고 웨이브케어

웃긴 해변 사진들

광고 TheFunPost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사진 30개

광고 AutoGuide

부드러운 음식만
찾고 계신가요

광고 플란치과변

영양제라고?

광고 토스용

Explore Registration
Options

광고 SIGGRAPH 2024

완벽한 스타일 파트너

광고 Temu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국경제

광고 한국경제

KB다이렉!
이륜차보험

광고 KB손해

에스오일 2
채용

광고 YBM

당연히 공사
점검하셨겠

광고 하우빌드

오늘의 포토



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인기뉴스

-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 인천지역 곳곳...
- 영흥 에코랜드 2년째 방치에 '가슴앓아'
- 여주 소상공인-신세계 '한 마을 식구'
- '화성 뱃놀이 축제' 방문객 호응 속에 성료
- 선도지구 지정에 1기·2기 신도시 희비쌍곡선
- 도내 중기, 亞 이슬람시장 판로 개척 첨병
- GH, 내달 26일까지 노후 주거지 가로주택 정...
- 北 오물풍선 또 살포... 안산에선 승용차 유리...
- 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 밤바다 수놓는 화려한 불꽃

주요기사



선도지구 지정에 1기·2기 신
도시 희비쌍곡선



김동연 "기회소득 시발점은
예술인... 노고에 감사"



갈 곳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
'든든한 울타리'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놓고 시끌



[기호일보 '글 쓰며 놀아 봐
요'] 여섯 번째 교실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 환
경부 장관 발언에 발칵

기호일보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32 비전타워 14층

전화 : 총무국 032-761-0007~8 편집국 032-761-0004~6 디지털뉴스부 032-761-0009 | 팩스 : 032-761-0015

경기본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기아자동차 빌딩 4층) | 전화 : 031-898-6767~8 | 팩스 : 031-898-6769

경기북부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11층 1102호 | 전화 : 031-872-2990 | 팩스 : 031-872-2991

등록번호 : 인천 아01548 | 등록일 : 2021-07-16 | 발행인 : 서강훈 | 편집인 : 한창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ihoilbo.co.kr

윤리강령 독자위원회 사내게시판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회사소개

인사말 찾아오시는길
조직 및 연락처

고객센터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문의
불편신고 제휴문의
저작권문의

